중국서 새 먹거리 확보 발판 마련

오리온, '바이오 공격 투자'로 미래 준비 착착

中에 결핵백신 첨단 생산공장 건립
합자법인 900억 투자, 2024년 완공
담철곤 회장 '중국통'으로 손꼽혀
지방정부 지원 힘입어 사업에 탄력


담철곤 회장

많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바이오를 주목하고 있다. 주력사업이 식음료인 오리온 그룹도 지주회사 오리온홀딩스(대표 담철곤)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오리온은 지주회사 대표이자 그룹 수장인 담철곤 회장이 재계의 대표적인 중국통인 점을 십분 살려 중국시장을 바이오 사업의 주요 무대로 삼고 있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결핵백신에 초점을 맞춰 지방 정부와 손잡고 공장 건설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12일 진행한 산둥루캉하오리요우와 중국 산둥성 지닝시의 '백신 개발사업 지원·협력 계약' 체결식. 백용운 산둥루캉하오리요우 대표(앞줄 왼쪽)과 쉬팅푸 지닝시 고신구 부주임.
사진제공 | 오리온

●中 지닝시에 첨단 백신생산공장 건립

오리온홀딩스가 중국에 설립한 합자법인 '산둥루캉하오리요우생물기술개발유한공사'(이하 산둥루캉하오리요우)와 글로벌 백신 전문기업 큐라티스는 최근 중국 산둥성 지닝시와 '백신 개발사업 지원 및 협력 계약'을 맺었다.

산둥루캉하오리요우는 이번 계약을 통해 지닝시 고신구의 바이오산업단지에 백신 생산공장을 지을 수 있는 4만 9600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산둥성 정부와 지닝시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조속한 결핵백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공장의 생산설비 구축 및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산둥루캉하오리요우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900억여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백신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백신공장 설계에 들어갔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곧바로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중국 바이오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꼽히는 공장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지방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산둥성 정부는 올 초 결핵백신 개발 사업을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도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현재 결핵백신은 세계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BCG 정도가 상용화되어 있다. 영유아기 이후의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은 전무하다. 중국은 현재 잠재 결핵보균자가 3억5000만 명에 달해 정부에서 중점관리 전염성 질병으로 지정한 상황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질환이어서 오리온은 새 결핵백신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계약에 참여한 큐라티스는 산둥루캉하오리요우의 지닝시 공장에 백신 생산설비 구축 기술을 이전하고 중국 내 백신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한 합자법인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CMO(위탁생산) 및 CDMO(위탁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 강화에도 나선다. 바이오 우수 인력을 대거 확충해 백신 개발부터 CDMO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지 합자법인 통해 바이오산업 가속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한 오리온의 바이오 사업은 지난해부터 본궤도를 타기 시작했다. 오리온홀딩스는 지난해 3월 중국 국영제약기업 '산둥루캉의약'과 함께 합자법인 산둥루캉하오리요우를 설립했다. 이 합자법인을 통해 국내 바이오 유망기술을 활용해 중국 현지에서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해 5월 국내 암 조기진단 전문기업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조기진단 기술 도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중국에 암 체외진단 제품 개발을 위한 대규모 양산 설비를 갖췄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산둥루캉하오리요우를 통해 글로벌 백신 전문기업 큐라티스와 총 투자규모 2000억 원에 이르는 결핵백신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큐라티스는 국내에서 첫 결핵백신 임상을 진행했고, 국내 최초의 mRNA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생산시설인 오송 바이오 플랜트가 식약처로부터 GMP(품질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신 의약품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이 건실한 기업이다.

오리온홀딩스 관계자는 "향후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 신규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여 그룹의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분야를 다각도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헬스팩'으로 간편하게 균형잡힌 여름 영양 보충

유사나 스테디셀러 멀티 비타민
야외 활동 많다면 '폴리C' 효과

유사나가 여름 체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헬시 라이프 솔루션으로 계절 마케팅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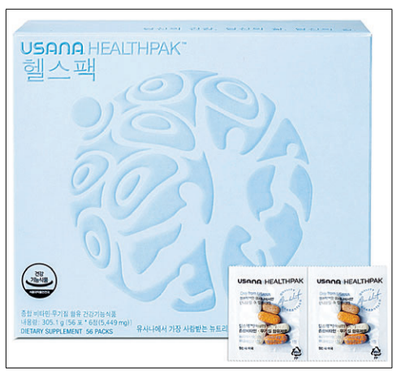
유사나코리아는 바쁜 현대인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초점을 맞추고 체력관리와 야외 액티비티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침향환 등 계절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우선 유사나의 대표 종합비타민이자 스테디셀러인 '헬스팩'이 있다.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7가지 식물성 부성분을 함유한 멀티 비타민이다. 다양한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아 일상에서 간편하게 균형잡힌 여름 영양보충을 돕는다.

여름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차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걱정한다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오메가'가 있다.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DHA와 EPA 지방산을 포함해 원활한 혈액 순환과 건조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기식이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지나친 자외선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한 '폴리C'가 좋은 선택이다.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C 1000mg과 부성분으로 아세로라추출물 등을 포함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준다.

홍긍화 유사나코리아 지사장은 "평년보다 더운 여름 날씨에 체력적으로 쉽게 지치기 쉬운 요즘은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라며 "종합비타민 '헬스팩'을 비롯해 면역 건강과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사나의 스테디셀러인 종합비타민 '헬스팩'.

김재범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불청객 '냉방병' 예방하려면 실내외 온도차 5도 유지해야

인체의 적정 온도는 평균 36.5도 정도다. 그러나 에어컨이 장시간 가동되면 인체의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워진다. 장시간의 냉방 효과로 신체 온도가 강제로 떨어져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냉방병이다.

냉방병 주요 증상으로 호흡기계 이상, 만성질환악화, 소화불량, 무기력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중 두통,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몸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지며 지속적인 무기력감을 느낀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동안 환기를 자주 하지 않아 냉방병이 나타나기도 한다.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두통과 눈, 코, 목 등의 건조 증상이 나타난다. 세균에 의한 냉방병도 주의해야 한다. 에어컨의 냉각수, 배출 공기 등이 세균에 오염돼 나타나는 레지오넬라균 감염이 대표적이다.

냉방병은 실내 냉방 환경을 개선해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콧물이나 몸살, 코막힘, 재채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심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검사 및 맞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먼저 에어컨 가동 시 실내외 온도차이를 5~6℃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4시간마다 5분 이상 시간을 들여 창문을 열고 실내외 공기를 환기하는 것도 필수다. 실내 온도는 22~26℃ 사이가 적당하다.



역삼 이비인후과 연세코앤이비인후과
최윤석 원장

옻이랑, 충북인삼농협 블랙푸드 흑염소 선봬



건강식품 전문기업 주식회사 옻이랑이 여름철 건강을 위해 충북인삼농협과 협업해 자연에서 온 블랙푸드 흑염소를 선보였다.

흑염소는 예부터 몸에 활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몸이 허하고 기력이 떨어진 사람, 몸이 지치고 약해진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보양식이다. 이런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자연 방목한 흑염소를 엄선하고, 기력에 도움을 주는 6년근 홍삼과 10가지 이상의 한약재를 배합해 만든 제품이 '충북인삼농협 블랙푸드 흑염소'다. 충북인삼농협 블랙푸드 흑염소는 몸에 좋은 산야초와 풀, 나무뿌리부터 열매까지 먹고 자란 흑염소로 만든다. 때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다. 특히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을 보해주는 한편, 지방은 적어 소화가 잘된다. 또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몸이 차거나 기력이 쇠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체온을 지켜주며, 떨어지는 기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충북인삼농협 블랙푸드 흑염소는 온라인 마켓과 옻이랑 홈페이지에서 100만포 판매 돌파기념 특별할인 행사 중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1일 (목) 음력: 6월 23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적색 길방:남	**토끼** 행운색:검정 길방:북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아무리 자신이 실력이 있어도 시기나 주위 환경이 불리하므로 남을 따르고 그 상황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다. 오늘은 육해살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지름길을 찾고 싶은 날이다.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개띠생과 대화하라.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친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킴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중도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킴이 중요하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오	상대방과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부인이나 자식, 근친자로 인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밖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 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오늘의 날씨 21일(목)

서울 70/30	24 / 31	인천 80/30	24 / 30
춘천 70/60	23 / 31	강릉 80/30	24 / 28
대전 100/30	22 / 30	전주 100/30	23 / 29
광주 80/20	25 / 30	대구 90/30	23 / 28
부산 80/30	23 / 27	창원 80/30	23 / 28
제주 60/30	28 / 31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7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